

인터넷의 은빛물결 '실버넷 운동'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문제 해결...참여대학 줄어 어려움 산적



세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수혜자가 되어 과거에 우리가 상상만으로 꿈꾸던 것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로 꿈의 시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시대는 과거의 경제적 빈부의 격차에서 정보 접근의 빈부 격차라는 새로운 모순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즉 이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시대의 소외계층인 이들은 일반 가정생활을 비롯한 여러 사회 문화에서 소외가 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노년층에 대한 디지털 소외 현상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민간단체에서 이들을 소외계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인터넷에 은빛 물결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실버넷 운동본부이다.

은빛 네티즌 군단 세력 확장

이는 그 동안 인터넷 세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이 전국의 대학, 교수,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민간 차원의 노인 무료 인터넷 교육 운동(실버넷운동) 때문에 인터넷 세상의 은빛 네티즌 군단으로 크게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 실버넷 운동본부는 지난 1년 동안 55세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결과 21,000여명이 국내 92개 대학을 통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수료한 노인층을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3%, 70대가 12%, 80대가 0.7%로 주로 50대와 60대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비율은 각각 67%와 33%로 여성 노인들의 인터넷 열기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79명으로 이는 전체 교육 수료 노인의 17.8%에 해당되는 인원으로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전남지역으로 14.1%인 3,016명, 경북과 경기지역이 각각 501명, 500명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노인 무료 인터넷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의 전직 직업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직 교사와 공무원, 군인, 의사 등 매우 다양하며, 지난해에는 건국대학교에서 실시된 교육에서 육사 18기 출신 군장성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동창회, 동호회들의 단체 교육 수료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 교육을 수료한 실버 네티즌들은 가족과의 이메일 교신에서부터 채팅, 동호회 활동, 인터넷 쇼핑, 생활정보 이용 등 젊은 사람들 못지 않게 활발한 네티즌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로 활용

이러한 한 예로 목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한 실버 네티즌 132명이 사이버 공간에서 동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지역, 연령, 취미, 종교별로 각종 모임방 144개를 개설하여 대학별 수료생들의 모임방만도 90여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정보의 달을 맞아 서울 체신청에서 주최하고, 한국정보문화센터 강서홍보관에서 개최된 노인정보검색대회에서는 실버넷 교육 1기생이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버넷 운동본부는 50~60대 수료생들은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을 착안하여 지난 7월 3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현재 5번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이들이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오랜 경험과 지식 경륜들을 인터넷을 통해 젊은 네티즌들에게 전해주고,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실버넷 운동사업부 남궁석 대회장은 “노인층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정보 평등 사회를 구현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평생 경험을 인터넷을 통해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출범 1년만에 2만명이 넘는 실버 네티즌 군단을 양성해 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원로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석 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 차원의 노인 무료 인터넷 교육은 NSI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에서도 후원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하고, “실버넷 운동이 우리나라 노인 층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지 지속적으로 살려 진행해야

실버넷 운동을 후원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 기업인 NSI사의 아서장 아태지역 사장은 “실버넷 운동은 연장자를 공경할 줄 아는 아름다운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노인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통해 세대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원로들이 갖고 있는 오랜 경험과 지식, 경륜, 노하우들을 젊은 네티즌들에게 인터넷 스피드로 확산시켜나간다면 한국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실버넷 운동은 처음 시작때 보다는 다소 후원이 줄어든 상태이다. 국내 후원사들은 국내 경기악화로 인해 자금력의 어려움을 느껴 후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대학들은 학생과 교수, 그리고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회 교육시 80개 대학에서 현재는 65개 대학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의실, 강사, 조교수 모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버넷 운동은 정부에서 연간 6억원의 지원금과 NSI에서 연 6만5천만원의 지원금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세계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 무료 교육은 현재 1일 4시간으로 8일 교육을 받고 있다.

실버넷 운동은 향후에도 순수한 사회 봉사활동으로서 그 취지를 잘 살려 많은 단체의 참여해야 할 것이며, 또한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Interview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중요해요”

실버넷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이 창훈(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노인분들께서 소일거리나 봉사활동을 찾는데 웹을 사용할 지 몰라 노인분들의 경력을 버리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는 현재 실버넷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인 이창훈 교수의 실버넷 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교수는 이를 통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등을 후세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도

한 실버넷 운동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운동은 노인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소외된 주부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버넷 운동은 처음부터 이리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2001년도 재정지원이 늦어져 2월 교육시 재정 집행이 안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이교수는 올해 1기 교육 당시 무척이나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며, 이는 마치 기업이 부도를 내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기분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해주는 교수와 학생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재정 집행이 되지 않아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실버넷 참여 교수들이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재정적인 사한들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수는 그때 실버넷 운동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고 함께 참여한 대학과 교수, 그리고 자원봉사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은 실버넷 운동은 보다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버넷 운동을 후원하는 기업체들은 경제 악화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후원이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닌 상태이며, 대학의 참여율도 조금씩 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서울의 참여대학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명문 대학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해요. 현재 명문대들은 모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이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이교수는 실버넷 운동의 향후 계획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노인들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것이며, 노인들의 지식공유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다”고 말하고, 또한 “실버넷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대학에 대해 대학평가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교로 봉사하는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건의 할 방침” 밝혔다. 이밖에도 지방대학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